

# “구자철은 올림픽팀에 양보하겠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2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표팀 운영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 조광래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

홍명보 감독 차출 요청에 협조 약속  
지동원 U-20대표 발탁은 반대입장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이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6월 19일과 23일, 요르단과 2012런던올림픽 2차 예선에 펼 전망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국가대표와 올림픽대표팀 차출 문제와 관련해 조광래 감독이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달 조 감독의 유럽 방문과 6월 3일(세르비아)과 7일(가나), 두 차례 국내 A매치를 앞둔 계획을 들여보는 자리였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온통 차출 문제에 쏠렸다.

### ●구자철은 양보

조 감독은 조만간 '베스트11+알파'를

정할 계획이다. 이 선수들은 올림픽 팀에 내주기 힘들다는 것. 조 감독은 “어느 나라든 베스트11은 대표팀에 있는 게 좋다. 나머지 선수들은 올림픽 팀에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감독은 인터뷰 도중 배려와 협조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여기에 어떤 선수가 포함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명단은 5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이다.

조 감독은 “평가전 차출을 위해 소속 팀에 협조공문을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 코칭스태프와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 꼭 11명은 아니고 12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팀 홍명보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밝힌 구자철에 대해서만 양보를 공식 천명했다. 조 감독은 “홍 감독이 기술위원장에 게 구자철 합류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단, 시기는 올림픽 2차 예선 두 경기가 벌어지는

6월로 한정된다. 이후는 상황을 봐 가며 다시 결정할 생각이다.

### ●베스트11+알파의 구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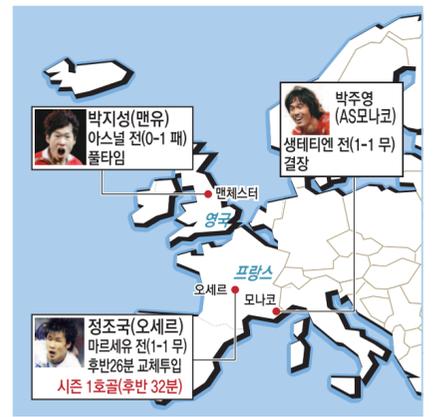
조 감독이 밝힌 '베스트11+알파'가 어떻게 구성될지가 관심이 쏠린다.

A대표팀 자원 가운데 홍 감독이 올림픽 팀 합류도 바라는 선수는 구자철 외에 홍정호(제주), 김영권(오미아), 김보경(세레소 오사마), 지동원(전남) 등이다. 만일 조 감독이 이들을 '베스트11+알파'에 포함시키면 감독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편, U-20 이광중 감독도 지동원 합류를 바라한다는 질문에 조 감독은 “선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 그러나 상위 대표팀에 있다가 하위 대표팀으로 내려가 좋은 결과를 내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U-20 차출은 곤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 유럽파 코리안 활약도



박지성(맨유) 아스널 전(0-1 패) 토티엄

박주영(AS모나코) 생테티엔 전(1-1 무) 결장

정조국(오세르) 마르세유 전(1-1 무) 후반26분 교체투입 시즌 1호골(후반 32분)

## Talk Talk 사커 유쾌한 뒷담화

## 염기훈 자전거가 키운 원발

### 어릴때 자전거 타다 오른발 다친 후 원발 달인 변신

●...수원 삼성 염기훈이 오른발을 잘 못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시절 자전거를 타다 바퀴에 오른발이 끼여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염기훈은 오른발을 잘 쓰지 않게 됐고, 원발의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난 겁니다. 지난해 남아공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결정적인 득점찬스를 잡은 그는 오른발로 쏘란 불이 빛나가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염기훈은 오른발을 잘 쓰지 않게 된 어린 시절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힘든 시간을 홀로 이겨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줄 모르고 오른발 사용에 대해 질문했던 한 기자로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 대전 원성재감독 패배 후 '묵인'...선수들 안절부절

●...대전 원성재 감독의 '묵인' 수행이 새삼 화제가 됐는데요. 왕 감독은 광주 원정에서 패한 뒤 감독실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은 채 벽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열이 올라 땀방울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대전 프런트의 전언인데요. 사실 앞선 7라운드 부산과 홈경기 때도 진 탓에 대전의 초반 상승세는 2연패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부산전 패배 후에도 왕 감독은 일부 고참들만 불러 간단히 미팅을 가졌을 뿐, 대부분 선수들에게는 거의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는데요. 광주전 패배 때도 리더의 침묵은 계속됐답니다. 잘못했을 때 차라리 회초리를 맞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대전 선수들은 딱 이심정이 아닐까요?

### 꽃미남 포청천 뒤편...김종혁 주심에 소녀팬 환호

●...K리그 꽃 미남 스타는 선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1일 광주-대전 경기를 진행한 김종혁(28) 주심이 환절한 외모로 많은 소녀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프로연맹 공식 트위터에 '잘 생긴 심판이 도대체 누구냐'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퍼졌답니다. 김 주심은 올 시즌부터 K리그 전임심판으로 합류했습니다. 1983년생으로 전임심판(주심) 가운데 최연소이구요, 최고령인 이광용(50) 주심의 조카뻘쯤 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2008년 FA컵 심판상, 2008, 2010년 내셔널리그 최우수심판상을 수상한 실력파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는 김 주심 말고도 이동준(28), 고형진(29) 주심 등 20대 젊은 피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선수를 못지않게 많은 고생을 하는 심판들 많이많이 응원해주세요.

### 방송진만 월드컵 수준...셀렝했던 시민구단 더비

●...시민구단 더비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FC와 대전 시티즌의 대결은 기대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머지 7경기가 전부 4월30일 벌어져 이 경기만이 유일하게 일요일(5월1일) 열린 경기였는데, 평소보다 많은 방송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케이블 채널을 포함해 무려 6곳이나 광주월드컵경기장 곳곳에 장비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라운드 주변에만 메인 카메라 8대와 함께 보조 카메라 4대가 있었고, 총 26대가 등장했지만 정작 홈 팀 광주 관계자들은 웃을 수 없었어요. 최악의 황사 주의보로 관중석이 텅 빈 탓이죠. 공식 집계 관중수는 2351명. 앞선 데 댈친 적으로 프로야구도 광주에서 치러졌으니 지역 팬들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드컵 중계 기준 카메라(24대)보다 많았는데 스탠드에 빈 자리가 많아 민망했다"던 한 광주 프런트의 말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 "대회가 코 앞인데..." U-20대표팀 선수 차출 한숨

●...U-20대표팀이 프로선수 차출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5월5일부터 열리는 수원 컵에 대비해 4월 중순 파주 NFC에서 훈련하고 있는 데요. K리그 소속 선수들은 리그 일정 때문에 1일 합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남 이종호, 김영욱, 황도연은 약속대로 1일 NFC에 들어왔는데 경남FC의 윤일록과 이재명은 감감 무소식, 결국 오지 않았죠. U-20 이광중 감독은 "구단에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전력에서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 하겠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포츠동아 스포츠2부 축구팀

## 7전승...고양대교, 적수가 없다

### 충남 일화 5-1 대파 단독선두 질주 서울시청, KSPO 제물로 첫승 신고

파죽지세. 여자 실업축구 전통의 강호 고양대교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다. 고양대교는 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 2011 WK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충남 일화를 5-1로 완파했다. 이로써 7전 전승을 내달리며 승점 21점째를 챙긴 고양대교는 리그 단독 선두를 고수했다. 반면 충남 일화는 2승1무4패(승점 7)의 전적으로 상위권 도약에 실패했다. 이 경기에서 후반 9분, 팀에 세 번째 골을 안긴 고양대교 프레스치나는 시즌 7호 골을 신고, 득점 부문 단독 선두를 지켰다. 6라운드 기점으로 리그 2, 3위 대결로 눈길을 끈 합안 대결에서는 전반 22분 결승골을 터뜨린 신지혜의 활약을 앞세운 수원FM C가 부산 상무를 1-0으로 눌러 4승2무1패(승점 14)를 신고했다. 그러나 보은 경기에서 현대제철이 전반 43분 박지영, 후반 7분 이세은의 연속 골로 스포츠토토를 2-0으로 완파한 바람에 수원FM C는 종전 3위를 유지했다. 현대제철은 수원FM C에 골 득실로 앞서 2위로 올라섰다. 한편, 서울시청은 화천에서 KSPO를 2-1로 꺾고 시즌 첫 승(1승3무3패)을 신고했다. 남정원 기자 yoshike3@donga.com



김송희가 2일 열린 미 LPGA 투어 에브넷 클래식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준우승만 6번째다. 모범이 알라배마 주) AFP연합뉴스

## 벌써 6번째...김송희 '2등 귀신'이 붙었나

### LPGA 에브넷 클래식 2타차 준우승 최경주 PGA 취리히 클래식 공동3위

김송희(23·하이트)가 미 LPGA 투어 에브넷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또 한번 준우승 징크스를 넘지 못했다. 벌써 6번째다. 김송희는 2일(한국시간) 미국 알라배마 주 모빌의 RTJ 골프트리얼(파72·650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과 버디를 1개씩 기록했지만 보기 2개를 적어내 1타 밖에 줄이지 못했다.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마리아 요르트(스웨덴·10언더파 278타)에 2타 뒤진 준우승. 아쉬운 한편이었다. 이전까지 LPGA 투어에 96차례 출전해 준우승만 5번했던 그는 4라운드를 공동선두로 출발해 준우승 징크스를 꺾는 기회를 잡았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5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 문턱에 다가섰다. 위기를 넘기지 못한 게 뼈아팠다. 9번과 12번 홀(이상 파4)에서 찾아온 두 번의 위기에서 모두 보기를 적어냈다. 이때까지 요르트는 5타를 줄이면서 4타 차 단독 선두가 됐다. 김송희도 경기 막판 16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 추격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았다. 두 살배기 딸의 엄마인 요르트는 LPGA 투어 통산 5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나연(24·SK텔레콤)이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3위, 서희경(25·하이트)은 합계 5언더파 283타를 쳐 양희영(22·KB금융그룹)과 함께 공동 6위에 올랐다. 한편 같은 날 루이지애나 주 에이번데일의 루이지애나 TPC(파72)에서 열린 미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640만 달러)에서는 최경주(41·SK텔레콤)가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시즌 네 번째 톱 10이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우승은 15언더파 273타를 친 버바 왓슨(미국)이 차지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정조국 10경기만에 프리그 데뷔골



프랑스 리그의 정조국(AJ 오세르)이 정규리그 10경기 만에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했다. 2일(한국시간) 마르세유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시즌 33라운드 올랭피크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정조국은 팀이 0-1로 뒤진 후반 26분 교체로 나서 6분 만에 동점골을 넣었다. 오세르는 정조국의 활약 속에 승점 1을 추가해 15위가 됐다. 1월 오세르에 합류한 정조국은 10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어 올 시즌 1골-1도움을 기록했다. 마르세유(프랑스) | 로이터연합뉴스